

해외선교소식지

꽃동네는세계로
세계는꽃동네로

2020SPRING
vol.1 창간호



꽃동네사랑의연구소
Kkottongnae Research Institute of Love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꽃동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자동이체 등 회원가입 문의 음성꽃동네 회원관리실 (043)879-0151~9

해외선교 기금 일시 납부 계좌

- | | |
|-------------|------------------------------------|
| 1) 방글라데시 | 우체국 301341-05-000409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
| 2) 우간다 | 우체국 301341-05-000350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
| 3) 필리핀 | 우체국 301341-05-001870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
| 4) 에이즈고아 기금 | 우체국 301341-05-000457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
| 5) 해외선교 기금 | 우체국 301341-05-000922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



2020 SPRING

Kkottongnae to the World, the World to Kkottongnae



| | |
|------------------------|--------------------|
| 권두언 / 2 | |
| 발간사 / 4 | |
| 축하의 글 / 6 | |
| 꽃동네를 아십니까? / 8 | |
| 꽃동네 심볼 소개 / 10 | |
| 교황님과 꽃동네 / 12 | |
| 꽃동네 선교지도 / 16 | |
| 꽃동네 선교영성 연재 / 18 | |
| 특집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티 / 20 | |
|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 28 | |
| 공동체 소식 필리핀 / 31 | |
| | 방글라데시 / 35 |
| | 인도네시아 / 38 |
| | 로마 / 40 |
| | 자메이카 / 45 |
| | 파라과이 / 47 |
| | 인도 / 49 |
| | 아르헨티나 / 50 |
| | 미국 / 51 |
| | 행동하는 사랑학교 체험담 / 52 |
| 꽃대의 해외봉사활동 / 54 | |
| 단신 / 55 | |
| 성소안내 / 56 | |
| 해외꽃동네 주소 / 57 | |

발행 꽃동네사랑의연구소

발행인 오웅진 신부

디자인 김승주 신부

발행일 2020. 1. 1

편집위원 김순여 수녀

신상현 수사

박영식 수사

강석임 수녀

김승주 신부

강정희 수녀

손동균 신부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 찬미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언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1976년 9월 12일 최귀동 할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던 그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953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난해서 아침밥을 굶고 8Km가 되는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현기증으로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죽을 것만 같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개울로 내려가 개울물을 실컷 마시고 개울가에서 한 잠을 푹 잤습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길에 올라와보니,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쟁 중에 비행기 폭격을 맞고 한쪽 다리가 잘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저씨와 어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개울에 내려가 작은 민물 새우 한 마리 잡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새우를 받아서 먹지 못하고 다시 어린 딸에게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애뜻한 부녀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 한 생애를



바쳐 '대한민국을 거지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사제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1976년 사제가 되어 부임한 무극성당에서 최귀동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의 전 재산 1,300원, 그 돈으로 1976년 9월 13일 시멘트 한 포대를 사서 불력을 찍고 그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며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 봉헌한 삶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꽃동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모이고 모여 커진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꽃동네 이름의 깊은 뜻은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 40)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는 1978년 8월 16일 충북 증평읍 반탄교 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네가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내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꽃동네는 마태오복음 25장 40절의 예수님 말씀과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특별한 영적체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꽃동네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난한 분들을 위해 자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속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꽃동네는 43년 전부터 꽃동네영성으로 대한민국을 복지 국가로 만드는데 초석이 되어왔고, 대한민국을 더 복되게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3년 전부터는 국경을 넘어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오고 가며 큰 꿈을 키워왔고,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꽃동네의 더 큰 또 하나의 꿈은 '꽃동네는 천국으로, 천국은 꽃동네로' 오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꽃동네나원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꽃동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체험의 말씀이 커져서 꽃동네회원,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자매회, 재속회가 복지, 행복, 교육, 사랑사업을 하면서 세상 끝까지 사랑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꽃동네타워 예수성심센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하느님의 축복 속에 사랑이 모이고 모여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주는 성자의집 사랑학교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꽃동네로 달려오십시오.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성령의 도구로, 하느님 구원사업의 동반자로 살아갈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자매회, 작은형제회, 자매회, 재속회원이 되어 가장 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0년 1월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오 응정신부님





선교지를 발행하며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1976년 오웅진 신부와 최귀동 할아버지의 만남으로 시작된 '꽃동네는' 한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리를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1996년 필리핀을 필두로 시작된 해외 꽃동네는 2019년 현재 15개 나라에 진출하여 약 650여명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필리핀(1996), 미국(1999), 로마(2002), 방글라데시(2006), 우간다(2007), 인도(2008), 아이티(2012), 캐나다(2013), 인도네시아(2014), 파라과이(2016), 아르헨티나(2016), 자마이카(2017), 파나마(2018), 미얀마(2019)의 순서로 과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 라는 성경말씀을 기초로 창설자 오웅진 신부를 통해 이루어진 꽃동네 영성을 가난한 나라에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우리 수도자들은 생소한 문화와 견디기 힘든 더위 속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고, 전염병과 싸우면서 또한 가난한 이들의 끝없는 요청을 들어주고, 때로는 도둑과 강도의

위험, 종교적인 박해까지 감당해 내면서 하느님의 뜻과 창설자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마태12, 12)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15,13)는 성경 말씀과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준다"는 창설자 신부의 영적 체험을 확신하면서 현재 꽃동네 남녀 수도자 70여명이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창설자의 영성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이국 땅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되어 가는지를 기록하여 꽃동네 선교영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지가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고, 선교 삶에 관심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꿈을 이루고 성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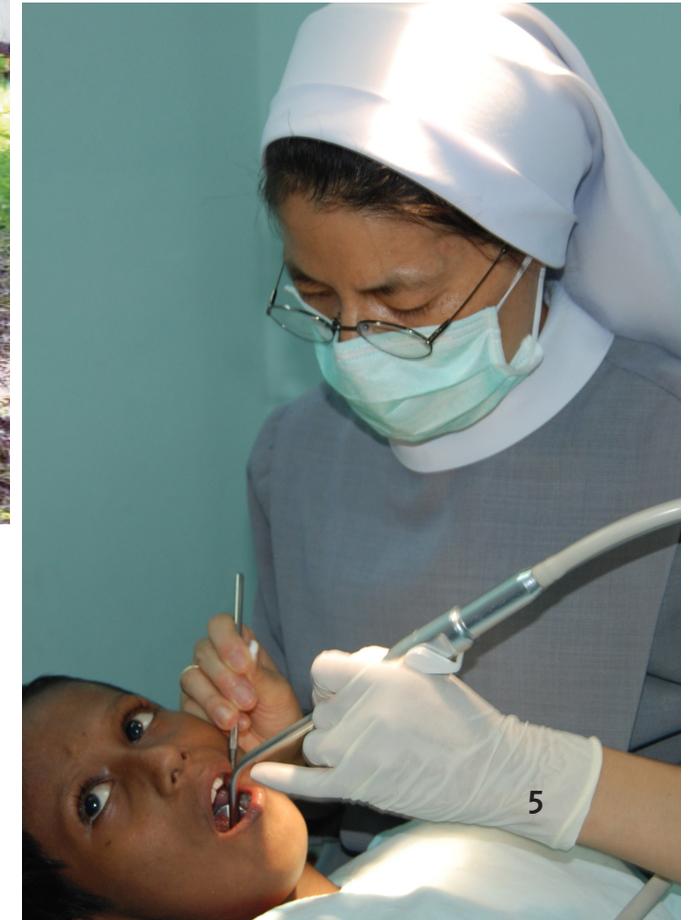


▲ 아이티 국립병원 앞에 버려진 전신마비 어린이, 시각장애로 앞을 볼 수 없지만 수녀님을 바라본다.



▲ 파라과이 꽃동네 - 신고받고 출동한 꽃동네 수도자들이 빈집에 버려진 환자를 인도하고 있다.

꽃동네 선교지를 통해 꽃동네 <가난의 영성>이 세계화되어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의 구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많은 젊은 봉사자들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꽃동네를 창설하시고 가난한 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오웅진 신부님께 감사와 존경,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편집실>





해외선교 소식지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글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총원장 김순여 시몬 수녀

창설자 신부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33년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1976년 꽃동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후 1986년에 예수의꽃동네형제회와 예수의꽃동네자매회가 창설되었고, 1996년 꽃동네 수도자들의 해외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창간되는 해외선교 소식지는 꽃동네 설립 43년, 수도회 설립 33년, 해외선교 진출 2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더욱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회헌을 인준받기 위해 1991년부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울여오던 노력들이 2015년에 결실을 맺었고, 그 해 제1차 특별총회로부터 시작된 1회기를 마친 다음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2회기를 시작한 2019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해외선교 소식

지 “꽃동네는 세계로, 세계는 꽃동네로” 창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필리핀 꽃동네 사랑의집에 수도자를 파견함으로써 해외선교를 시작한 꽃동네 남녀 수도회는 2019년 10월 현재 15개국 19개 교구에 설립된 19개 꽃동네 분원에 신부님 7분, 수사님 20분, 수녀님 45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수도자들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40)이라는 말씀에 자신들의 영성을 깊이 뿌리박고,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 머지 것은 내가 모두 책임주겠다”(1978.8.16. 창설자 신부님의 영

적 체험) 고 하신 수도회 창설 카리스마에 따라,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고 하신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성덕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사랑”(회헌 10)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조건들이 미비했고,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때그때 굵이굵이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수도자들의 열망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몸소 함께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는 해외선교 여정뿐 아니라 수도회 33년, 꽃동네 43년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더욱더 온몸과 온 마음에 사무치는 감사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조건들은 미비할 것이고, 스스로는 여전히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곳이면 어디든지 파견”(회헌 21)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고, 수도자들은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순명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태에서 너를 빛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예레 1,5)고 하시는 그

분께 선택받은 자신들의 존재 방식이며, 그 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점에서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 전체에 해외선교 소식지가 응원군으로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동네를 아십니까?

꽃동네의 탄생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1976년 9월.

한 사제와 한 걸인의 만남으로 꽃동네는 시작되었습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걸인이었지만, 얻어먹을 힘도 없이 죽어가는 다른 걸인들을 40년간 동냥하여 보살피는 삶을 사셨고, 이러한 할아버지의 삶을 목격한 오웅진 신부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때부터 오웅진 신부는 주머니 돈 전부인 1,300원을 털어 집을 짓고, 걸인들을 한분, 두분 모셔와 돌보아드렸고 ...

그렇게 모인 가난한 이들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꽃동네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Since
1976



"나머지 것은 모두 책임져 주겠다"

꽃동네는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창설자의 특별한 영적체험에 그 영성적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16일 오웅진 신부는 차를 타고 가는 중 '반탄교' 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노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신부는 하늘에서 울려오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네가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모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날부터 오웅진 신부는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욱 투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길거리의 가난한 이들을 맞아 들일 때마다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적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세상의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꽃동네의 영성입니다.

〈편집실〉

꽃동네 심볼 소개

꽃동네 심볼은 창설자 오용진 신부가 서품 30주년이 되는 2006년 5월 3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여 만들었다. 심볼의 흰색 바탕은 성부이고, 가운데 큰 별은 성자, 빛은 성령을 의미한다. 큰 별에서 생긴 4개의 작은 별은 꽃동네의 인적구조인 꽃동네회원,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재속회를 뜻하며, 동시에 사도직인 복지(종합사회복지시설), 행복(사랑의연수원), 교육(꽃동네대학교, 꽃동네학교), 사랑(사랑의영성원)을 의미한다.



복지 Welfare

꽃동네 종합사회복지시설
Kkottongnae Social Welfare
사랑 결핍의 결과치료
Measures to heal the results of the lack of love

교육 Education

꽃동네대학교 / 꽃동네학교
Kkottongnae University / Kkottongnae School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Measures to cultivate experts to love
with spirituality and intellect

사랑 Love

꽃동네사랑의영성원
Kkottongnae Spirituality House of Love
꽃동네 사랑연구소
Kkottongnae Research Institute of Love

행복 Happiness

꽃동네사랑의연수원
Kkottongnae Training Institute of Love
사랑 결핍의 원인치료
Measures to heal the causes of the lack of love

본 회의 영성은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즉,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재앙의 결과적 치료로서의 '꽃동네 종합사회복지시설'(복지)과 그 사랑의 결핍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꽃동네사랑의연수원'(행복), 사회복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꽃동네대학교'와 장애아동들의 재활과 인적 양성(교육), 하느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

시켜 주는 '꽃동네사랑의영성원'(사랑)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체계와 서로 간의 관련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구현되고 강화되며, 각 사도직 활동과의 특별히 밀접한 연관 속에서 영적인 피드백(feedback)작용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여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원인을 치유하고 인간의 삶이 목표하는 참된 행복이 사랑임을 깨닫게 해준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언 1,7)는 말씀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하느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을 연구하여 가르쳐 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준다.



꽃동네를 알려드립니다

교황님과 꽃동네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은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하시어 “현대의 복음 선교는 마더 데레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는 이 말씀을 듣고 꽃동네가 '한국의 마더 데레사' 이므로 복음 선교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2014년 8월 16일 음성 꽃동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꽃동네 태아동산에서 무고하게 유산당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태아동산은 2000년 대회년 전국가정대회 때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10여 명의 주교들의 축복으로 조성되었다.

I.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알현(2003. 1. 6)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의 서임식에 초대된 오웅진신부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하고 꽃동네 활동을 보고 드리고, “언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목명관을 선물로 드렸다.(1989년 세계성체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은 꽃동네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II.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알현(2006. 3. 24)

오웅진 신부 일행은 2006년 3월 로마에서 거행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서임식에 참석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알현하고 꽃동네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도직 활동을 보고 하였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꽃동네 방문을 원하셨으나 건강의 악화로 은퇴하시게 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III.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꽃동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꽃동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왔다.

교황님께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재임시 꽃동네를 교구로 초청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길 원하셨다. 그러나 교황으로 피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시자 바티칸으로 꽃동네를 초청하셨다.

1차 만남 (2013. 8. 2)

바티칸 성녀마르타의 집에서 개인적인 알현의 시간을 가졌다.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교황님께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 남북 통일, 2014년 꽃동네 방문의 세 가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 결과로 역사적인 꽃동네 방문이 이루어졌다.





2차 만남 (2014. 8. 16)

2014년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꽃동네 장애인 시설인 희망의집에서 80여명의 꽃동네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고, 태아동산에서 낙태된 태아들과 낙태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다. 또한 한국의 4,300여명 수도자·성직자들과 만남을 가지셨고, 15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주셨다.



3차 만남 (2015. 1. 17)

2011년 11월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레이테 섬을 강타하여 10,000 여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집과 재산을 잃었다. 오웅진 신부는 두차례의 성금을 모아 현장에 전달하였으며 2014년 5월 8일 팔로교구장을 만나 태풍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당시 교황님이 지원하신 성금으로 노인요양원, 고아원, 진료소 등이 지어졌으며, 그 센터의 이름을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교황프란치스코의집>이라 명명하고 2015년 1월 17일 교황님의 강복을 받게 되었다.



4차 만남 (2017. 6. 7)

2017년 세계가톨릭성령쇄신 50주년을 기념하여 바티칸에서 개최된 세계성령대회에 참석한 오웅진 신부 일행은 강화꽃동네에 지어진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의 집 <교황프란치스코센터>와 무연고자들을 위한 봉안당 <추기경정진석센터>의 머릿돌을 강복받았다.

5차 만남(2019. 1. 27)

2019년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마지막날 에이즈 시설을 방문한 교황님께 꽃동네가 준비중인 파나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자메이카의 사랑의집 머릿돌을 강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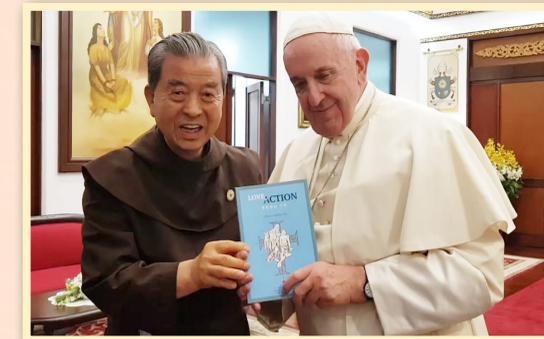
6차 만남 (2019. 6. 8)

새로운 세계성령쇄신단체인 <카리스>의 탄생을 기념하여 바티칸에서 열린 성령지도자대회 때 참석하신 교황님께서 꽃동네 수도자들과 그들이 돌보는 바티칸의 노숙인들을 만나주셨다.



7차 만남 (2019.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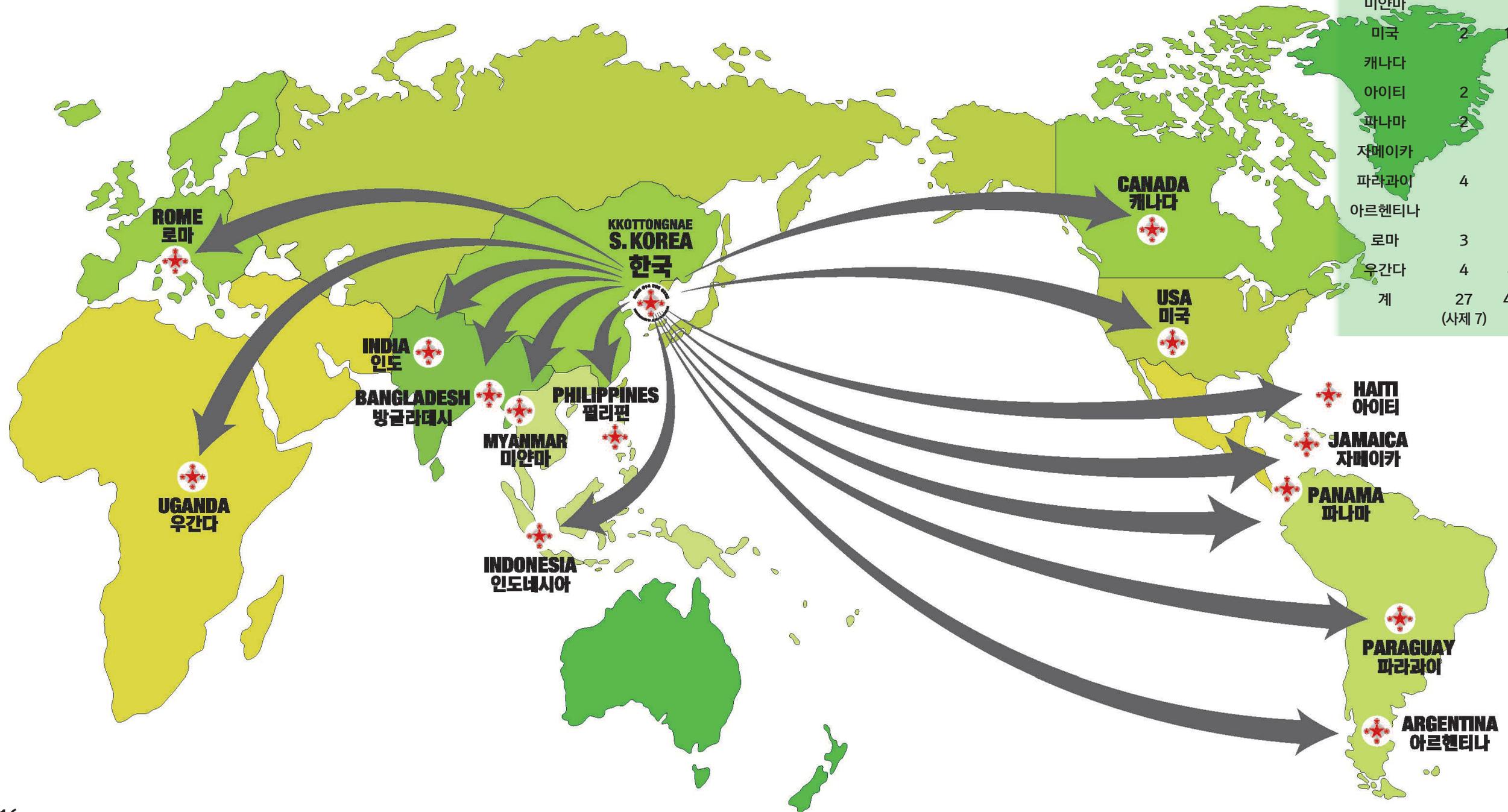
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미얀마 꽃동네 머릿돌을 강복받았다. 교황님께서서는 예수회 알베르 바노에 추기경이 집필한 꽃동네 <행동하는사랑(Love inAction)>책자를 들고 오웅진 신부와 기념 촬영을 하셨다.





해외 꽃동네

OVERSEAS KKOTTONGNAE COMMUNITIES



| | 수사 | 수녀 | 계 |
|-------|----|----|----|
| 필리핀 | 8 | 7 | 15 |
| 인도네시아 | | 2 | 2 |
| 방글라데시 | 2 | 2 | 4 |
| 인도 | | 3 | 3 |
| 미얀마 | | 2 | 2 |
| 미국 | 2 | 11 | 13 |
| 캐나다 | | 2 | 2 |
| 아이티 | 2 | 3 | 5 |
| 파나마 | 2 | 2 | 4 |
| 자메이카 | | 2 | 2 |
| 파라과이 | 4 | | 4 |
| 아르헨티나 | | 3 | 3 |
| 로마 | 3 | 2 | 5 |
| 우간다 | 4 | 4 | 8 |
| 계 | 27 | 45 | 72 |

(사제 7)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요한10,11)"

글 예수꽃동네형제회 부총원장 신상현 야고보 수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CCC849: 선교명령)

지난 23년간 해외꽃동네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꽃동네 수도자들은 창설자 신부의 영적 체험에 기초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깊이 체험해 왔다.

꽃동네 수녀, 수사들은 지구상의 최빈국의 고통의 현장에서 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느님의 현존과 도우심을 체험하며 산다. 그 소중한 경험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과 믿는 이들과 나누기 위해 선교 영성을 정리하고 체험담을 나누어 본다.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파견되신 최초의 선교사이시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은 일치와 겸손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인류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준비 단계 : 죄 없으신 그분께서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으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준비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된 사막에서 인간성의 나



약함을 감당하시고,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위한 배려였다.

2) 사도적 활동 : 예수님은 항상 죄인, 병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군중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1,15).

3) 구원의 완성 :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요한19,30).

열두 사도들, 예수님의 후계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열두제자를 공생활 동안 동반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체험시키시면서 72인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뒤 선교지로 파견하시고, 돌아온 뒤에는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정리해 주

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고 하시며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성령강림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당신의 양성을 완성하셨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두려움없이 각 지역으로 나누어 파견되었다. 사도란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열두 사도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 8,34)는 가르침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병을 고치고, 마귀를 때려,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사할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였다.

꽃동네 수도 삶, 열두 사도 영성

꽃동네 수도자들은 서원 수도명을 받을 때 열두 사도의 이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도회를 설립하신 오웬진 신부가 모든 수도자들이 열두 사도의 영성을 따라 살 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요한 10,11)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두 사도들은 자신들을 희생의 산 제물로 바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함으로써 선교 사명을 완수하였다. 요한 사도만이 피의 순교가 아닌 사랑의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꽃동네 수도자들은 머나먼 미국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사도들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 간다. 그것은 열두 사도의 스승이시며, 꽃동네의 주보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셨듯이, 꽃동네 수사, 수녀들은 '이 세상의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예수성심의 사랑, 사도들의 영성을 살아 감으로써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열매 맺는 것이다.

교황님께서서는 2019년 6월 8일 바티칸에서 세계의 성령지도자 5천 여명 앞에서 세가지 말씀을 해 주셨다. 교회 안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세례를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며,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할 것을 당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61,1/루카4,18).

도서소개



구세주의 협조자들

위대한 사명

가톨릭출판사

정진석 추기경이 사제 수품 58주년을 맞아 집필한 58번째 저서로 2019년 11월에 출간되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열두 사도들을 각각 조명하고, 요한 세례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 바오로 사도까지 성경에서 사도들의 명단을 표기한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사도들의 나약함, 두려움, 근심, 걱정 등 결점까지도 가감 없이 다룬 의미있는 저서로 평가된다.

정진석 추기경은 1986년 12월 예수꽃동네형제회·자매회 수도회 설립을 인가해 준 당시 청주교구장이다.



특집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티 꽃동네

중미의 섬나라 아이티(HAITI)는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 섬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는 세계 최빈국이고 정치는 불안정하며 치안 또한 엉망입니다. 총기를 휴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온 나라가 쓸대밭이 되다시피 한 곳입니다. 2011년 11월 첫 파견된 수도자들은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장애 아동들과 거리에서 죽어가는 행려병자들도 모시기 시작했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환자실과 아이들을 위한 '천사의 집'을 갖추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는 사도직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이티 꽃동네와 FFP(Food For the Poor)



▲ 2011년 11월 오웅진 신부가 FFP(Food For the Poor) 회장 로빈 마푸드에게 아이티의 에이즈 환자들을 위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FFP 재단은 중남미 17개국의 가난한 이들을 지원해 주는 규모가 미국 10위 안에 드는 자선복지 재단이다.

오웅진 신부는 2009년 세계성령대회를 치루고 그 대회의 열매로 1억원을 기부하여 ICCRS(세계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가 전 세계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를 도울 것을 제안 하였다.

그런데, 2010년 1월 아이티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30만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콜레라가 창궐하고 에이즈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ICCRS는 아이티에 2만불을 기증하여 에이즈환자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기부금은 FFP 재단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 재단은 중남미 17개 국가를 지원해주는 자선 단체로 당시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관계자가 한국 꽃동네를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난 뒤에 꽃동네 영성에 감동되어 300만불의 가치가 넘는 아이티 노인요양시설을 꽃동네에 조건없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5월 1일 첫 수도자가 파견되어 현재 6명의 남녀 수도자가 약 300 여명의 노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티는 현재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UN과 자선단체로부터 받고 있으나, 정치의 불안과 치안 부재로 인해 도둑과 강도가 많고, 전염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꽃동네 수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시립병원을 방문하여 거기에 버려져 죽어가는 비참한 환자들을 모셔와 의식주와 치료를 제공하고,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는 구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시설과 버려진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특집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티 꽃동네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약속의 땅'

글 아이티 꽃동네 최미경 마리아 수녀

아이티 꽃동네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장애 아동들과 거리에서 죽어가는 행려병자들도 모시기 시작했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환자실과 아이들을 위한 '천사의 집'을 갖추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는 사도직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지만 숨을 거두는 분들도 있고, 다행히 다시 건강을 회복해 받은 사랑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봉사로서 답하는 모습을 볼 때 수도자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40여 명의 직원들도 수도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변해가는 가족들의 모습에 함께 기뻐하며 그들 역시 변화되어 갑니다.

행려병자에게 손도 대지 않던 이들이 노숙인들을 모시고 오면 데려가 씻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시신 근처에는 가지도 않던 이들이 돌아가시는 꽃동네 가족들 옆에서 기도를 바치게 되었고...공동체 모두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가 이곳, 꽃동네임을 실감하는 순간들입니다.

아이티의 극도로 불안한 치안이 때론 목숨까지 위협하지만 꽃동네 수도자들은 불안한 치안을 이유로 마냥 몸을 사

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빈민촌이든, 쓰레기장이든, 산꼭대기든 갑니다.

현재 아이티꽃동네는 40여 년 전 한국의 꽃동네 초창기 모습을 재현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병원에서, 인근에서 죽어가는 걸인들을 모셔와 정성을 다해 치료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며 장례를 치루고 장지에 가면 그 또한 열악하기만 합니다. 시신을 모신 관에서조차 무엇인가 가져갈 것을 야무지게도 가져가는 이들 때문에 묘지 여기저기에는 유골이 나뒹굽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는 묘지에 꽃동네 가족들을 모시는 게 영 맘에 걸려 현재 아이티 꽃동네는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동네는 믿습니다, 1,300원의 기적을...

이 놀라운 기적이 거듭되다보면 이 척박한 땅의 불행도 치유될 수 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서로를 살아가게 하는 행복한 열정과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는 한, 꽃동네를 통해 총명한 행복의 꽃이 피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수도자 이야기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25,40).

오늘 도 이곳 아이티꽃동네에 서는 우리 곁을 떠난 영혼을 기억하며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생명이 위태로운 채 병원에 버려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급히 아이티꽃동네로 모셔졌고 오시자마자 임종 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티에서는 흔하게 만나는 일상이지만 긴장으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조금은 특별한 일상입니다.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기 12,1).

2010년 아이티의 대지진 발생 2년 후, 6명의 꽃동네 수도자들이 이곳 아이티에 파견되었습니다.

아이티 공항에 도착한 그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고약한 냄새, 찌는 듯한 더위, 모기떼, 지진의 잔해들 그리고 아무도 처리해 주지 않는 거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꽃동네를 시작할 곳까지 가는 길도 공항에서 처음 보았던 풍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통 쓰레기 더미들이었고 일거리가 없어 무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아이들,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거적 대기를 걸친 너무 흔한 걸인들의 모습에 선교지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지진으로 20만명이나 목숨을 잃은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이곳 아이티에서 과연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웠고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6,33).

아무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청소부 터 시작해 꽃동네의 터전을 가꾸어 온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티는 힘든 땅이지만 꽃동네에는 행복한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구걸하던 이들이 꽃동네에서 몸이 회복되고 나면 목욕봉사를 하고 청소를 돕고 식사수발을 자청하고 얼마 안되는 용돈으로 헌금을 내고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꽃동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달랄 줄만 알던 사람들이 베풀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 수도자들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 저녁 때가 되면 한 목소리로 목주 알을 돌리는 것도 기적이고, 편리한 문명의 기기들로 둘러싸여 살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척박한 땅에 끊임없이 많은 봉사자가 찾아오는 것도 모두가 기적임을 매일 매일 체험합니다.

이곳을 찾은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아이티 꽃동네는 천국입니다.' '봉사하러 왔지만 봉사 받고 갑니다.'라는 말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돌아 갑니다. 그들 중에는 이런 체험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성소를 찾아 사제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후원금과 물품을 모아 아이티로 보내주 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티 꽃동네를 통해 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길, 그러나 주님께서 전부를 채워주시니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곳 아이티의 가난하고 아픈 영혼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곳을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오늘도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길을 나섭니다.



가족 이야기



▲ 서울성모병원 정득남 나탈리아 국제협력단 팀장과 팀원들의 주선으로 무료 수술이 이루어졌다

알루드 아단의 부활

쓰레기장에서 죽어가던 한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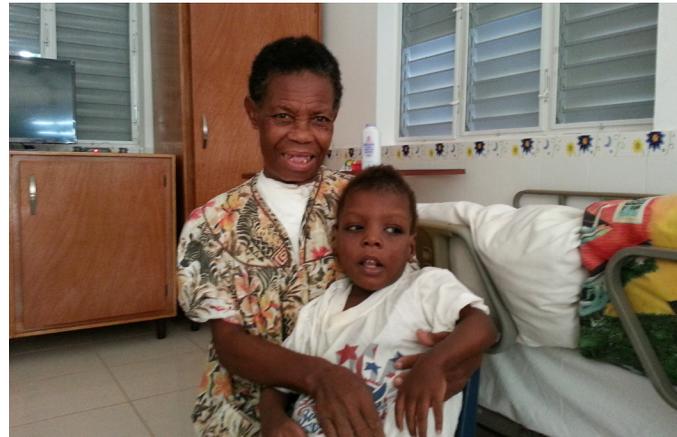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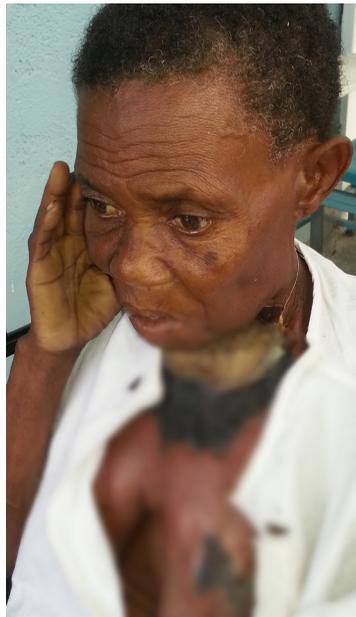


2016년 1월, 꽃동네 수도자들은 아이티의 한 국립 병원 구석 쓰레기장 근처에서 목부터 가슴까지 찢어 들어가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던 한 여인과 마주하였습니다. 찢어가던 몸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밀쳐내고 있던 여인, 바로 알루드였습니다. 알루드는 곧바로 아이티 꽃동네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상태가 심각했던 탓에 결국 얼마 못살고 돌아가실 것처럼 보여 종부성사를 주고 최선을 다하며 치료와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드에게 점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살이 조금씩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부러진 심지 같았던 그녀는 아이티 꽃동네에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1년 간의 치료 끝에 알루드는 흉터가 남긴 했지만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다

알루드의 변화는 건강해진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알루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도 돕고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거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처음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럽게 울며 내 삶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꽃동네 수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 주신 것이지요. 하느님과 꽃동네 수도자들에게 드릴 감사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지요.”

두 번째 기적

그런 그녀에게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새 살이 돋는 과정에서 목 피부가 당겨져 목을 돌릴 수도 쪼들 수도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한국에 전해졌고 이에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 정득남(나탈리아)팀장의 주선으로 알루드의 진료비와 수술비용은 서울성모병원, 항공료 및 체류비 등의 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공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아이티로 돌아간 알루드는 여전히 식사 수발에 손을 보태고 청소를 돕고 주방으로 출근을 합니다. 힘겹게 살아온 일생과 질병, 꽃동네 수도자들과의 만남, 기적 같은 회복과 치료,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의 복지

요즘 알루드에게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정신지체가 심각해 대소변을 정리해 주고 침을 흘려 늘 젖어 있는 옷도 갈아입혀 줄 엄마가 필요한 마틴에게 알루드는 기꺼이 엄마가 되어 줍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마틴에게 내리사랑으로 전합니다. 오늘도 엄마 알루드는 마틴을 예쁘게 씻겨 재우는 것으로 마지막 일과를 마칩니다. 꽃동네 사랑의 복지는 달랠 줄만 알던 이들을 모셔 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줄 줄만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지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아이티 꽃동네의
봉사자입니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진주를 품기 위해 아픔을 이겨가는 우간다 사람들
빈곤과 에이즈, 풍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인간 구원에 투신하는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자매회 수도자들을



꽃 동네 남녀 수도자들이 2007년 5월 우간다 움바라라 교구에 파견되어 현지의 에이즈 감염 고아들과 의지할 곳 없는 행려병자를 맞아들어 보살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간다 꽃동네는 움바라라 교구 카라마 지역에 에이즈 감염 고아들 60여명을 맞아들어 보살피며 치료와 정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후루라 지역에서 교구소유 초원 30만평을 무상 임대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행려병자들을 위한 집을 2015년 준공하고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행려병자들의 집인 사랑의 집에는 의지할 곳 없는 남녀 행려병자 100여명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키후루라 지역에 에이즈 감염 고아들을 위한 '추기경 김수환 센터'를 준공하고 지역의 에이즈 감염 고아들을 맞아들어 보살피며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부지 안에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ICA와 우간다 꽃동네가 합동으로 에이즈 가정방문과 현황 파악,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인 '에코 프로젝트'발대식을 2013년 4월 현지에서 가졌습니다.

이후 에코 프로젝트 팀은 키후루라 지역의 에이즈 감염인 가정방문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꽃동네가 위치한 키

루후라 지역의 18개 구역 중 꽃동네가 위치한 냐카사사라를 포함한 4개의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방문원을 통해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되었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950가정의 1,600여명의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코이카와의 민관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 꽃동네 단독으로 에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650가구 900여명의 아동과 그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2018. 8. 18 추기경김수환센터 준공식
우간다 움바라라 교구장 폴 K 바첵가 대주교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도직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을 우간다 주재 교황대사님과 대
통령의 대리자로 오신 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모인 모든 분
들과 특별히 오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 신부님을 한국에서 보았
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사랑의 영
이 아프리카까지 먼 여정의 길
을 오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을 이곳에서 이렇
게 볼 수 있음에 기쁘고, 신부님이
아프고 외롭고 불우한 이들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 신부님은 젊은이들이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
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캄팔라 가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
일드메이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참
한 모습의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 아이들은 제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곳 책임자에게 이 아이
들에 대해 물어보니 이 아이들은 HIV/AIDS를 갖고 태어
났으며 어떤 종류의 HIV/AIDS인지, 어떻게 이 병이
생겨났는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
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
기는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 신부님을 만
났고 꽃동네는 병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아픈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학까
지 있었습니다.

한번은 독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국에 있는 꽃동네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법과 아픈 사
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으며 아픈 이들의 건강이 좋아
질 때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발전시켜주는 사명
을 지닌 이들을 만나왔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필리핀 꽃동네

교황님의 자비가 깃든
팔로 꽃동네 <교황프란치스코의집>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지나간 필리핀 레이테 섬에 수도자 파견

2013년 11월 8일 필리핀 레이테 섬에 태풍 하이
엔이 휩쓸고 지나가 10,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섬의 90%가 파괴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팔로 대교구장을 교황
청으로 초대하여 태풍 피해로 고통받는 고아들과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과 진료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하며 성금을 전달
하였다.

꽃동네에서도 레이테 섬의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시작하였고, 창설자는 2회에 걸쳐 성금 2천만원을 팔로교구
에 전달하였다.

2014년 6월 25일 창설자 신부는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태풍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였다. 마침 이 시설을 운영해줄
수도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대주교는 창설자 신
부와 꽃동네 수도자 일행을 만났고 ‘당신들이 내 기도의 응
답’이라고 하며 꽃동네에 운영을 부탁하였다.

2014년 10월 4일 꽃동네 수도자들이 파견되었고, 2015년
1월 17일 <교황프란치스코의집>이 완공 되었다. 특별히 당
시 필리핀 사목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프란치
스코의집>을 방문하여 직접 축성하였다.

추기경김수환센터



▲ 우간다 꽃동네 <추기경김수환센터>는 버려진 에이즈 고아들을 위해 2018년 8월 준공된 시설이다.



**2018. 4. 20 세부 '노숙인보호소 및 무료급식소' 기공식
오스발도 파딜리아 전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님께서 꽃동네를 이곳 필리핀에 초대하셔서 현재 마닐라 있는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집과 따카이파이의 외국인 지원자들을 위한 국제 양성소에서 꽃동네 수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교황님께서 바티칸 주위에 있는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꽃동네에 맡기셔서 꽃동네는 현재까지 바티칸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전 세계 안에서 꽃동네가 하는 자선사업에 대해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창설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꽃동네가 이곳 세부에 왔습니다. 꽃동네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웅변적으로 증거할 것이며,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줌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봉사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도직

꽃동네는 1996년 길거리의 고아들을 위한 마닐라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소망의 집'이 개원하였고, 2015년에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타클로반 지역에 태풍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아동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인 <교황프란치스코의집>이 개원하여 필리핀에 가난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필리핀 세부에 꽃동네가 진출하여 세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20일 기공식을 하였다.

사랑의 집(아동시설)

1996년 당시 필리핀에 진출해 있던 교민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지어 꽃동네에 기증하였고, 당시 마닐라 대교구장이셨던 신추기경의 승인으로 '사랑의 집'이 개원하였다. 사랑의 집은 길거리 고아들을 위한 아동시설로서 현재까지 146명의 길거리 아이들이 꽃동네 사랑의 집을 통하여 성장하고 독립하였으며, 현재는 25명의 아이들이 꽃동네 수도자들 보살핌 아래 성장하고 있다.



소망의 집(노인시설)

2006년 당시 한국에 있던 오웅진 신부는 기도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고, 필리핀 사랑의 집에서 소임하는 수녀에게 전화하여 마닐라의 어느 다리 밑에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지시한다. 수녀들은 그곳에 이르러 할머니를 발견하고 수녀원에 모셔 돌보아드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필리핀 꽃동네 진출 10주년 기념일(2005년 12월 21일)에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소망의 집'이 개원하게 된다. 현재까지 126명의 노인들을 모셨고, 현재 47명의 가족들을 모시고 살고 있다.

세부꽃동네

전 주한 교황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리아 대주교의 요청에 따라 2017년에는 필리핀 세부에 꽃동네수도자가 파견되게 된다. 세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20일 기공식을 하고 현재 건축진행중이다. 이 집은 버려진 이들을 모시기 위한 요양시설과 함께 길거리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급식소 및 샤워장 시설도 갖추어질 계획에 있다.



▲ 1996년 12월 마닐라 사랑의집 개원을 앞두고 마닐라대교구장 신추기경을 예방한 오웅진 신부와 수도자들

필리핀 국제양성소

2017년 외국인 지원자들의 양성을 위한 국제양성소가 필리핀에서 시작되었다.

필리핀 따가이파이와 마닐라에 각각 형제회 자매회 국제양성소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김상엽 타대오 수사와 조미자 마지아 수녀가 양성장으로 파견되었고, 현재까지 3명의 필리핀 현지 수도자가 배출되었으며 필리핀, 베트남, 나이지리아 출신의 지원자 5명이 현재 양성 받고 있다.

국제양성소는 꽃동네 영성이 전 세계로 전파됨에 따라, 외국인 지원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수도회 상황에 맞추어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영어권 외국인 지원자들을 이곳에서 양성하여 전 세계로 파견할 계획에 있다.

국제양성소에서는 수도자가 되기 위한 기도생활 및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교육과 수업 및 시설봉사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특별 활동 등을 통해 꽃동네 영성과 창설자의 카리스마를 배우고 있다.

성소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성소자학교와 연 2회 성소자 피정을 통해 필리핀 현지 성소자 양성도 함께 하고 있다.

형제회 국제 양성소

주소 : 4-122 Maitim 1 sitio loob, Amadeo, Cavite
담당 : 김상엽 타대오 수사 +63 9569512390

tadekim12@gamil.com

자매회 국제 양성소

주소 : 25-27 LPL ave Levitown executive village
betterliving, Paranaque

담당 : 조미자 마지아 수녀 +63 9669571511

anabim3333@hanmail.net



▲ 따가이파이 국제양성소



방글라데시 꽃동네 진출 10주년.. 기쁨의 날개 짓~

예수

의꽃동네유지재단에서는 방글라데시 진출 10주년을 맞아 수도인 다카 근교 꾸질라바리(Kuchilabari)에 장애인의 보금자리인 희망의 집을 준공하여 2014년 4월 14일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꽃동네는 2006년 2월 방글라데시에 처음 진출하여 그해 12월 수도인 다카에서 사랑의집을 열고 장애인과 행려병자들을 맞아들여 보살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랑의 집과 희망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분들은 16명이며 꽃동네에서 파견된 수도자들과 현지인 직원들이 함께 가족 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신축된 희망의 집은 655평의 2층 건물로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에서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 분들과 노약자 분들을 맞아들여 더 좋은 시설에서 가족 분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저마다 가슴 한쪽에 멍울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특히 이슬람과 힌두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과부가 된 여자는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들은 신의 저주를 받아 장애를 안게 됐고 과부가 됐기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자체적으로 장애인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어 주로 해외 원조 기관이나 수도회에서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지만, 그나마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인 희망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꽃동네는 길거리를 떠돌던 아이를 데려와 마음의 안정을 찾아 주고,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일등을 해 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광시받던 고아나 과부, 장애인들을 먼저 찾아가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느꼈을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방글라데시 꽃동네는 어머니가 젖먹이를 돌보듯,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듯 벽찬 사랑의 기쁨으로 방글라데시 꽃동네 가족분들을 돌보며 수도자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페트리 디로자리오 방글라데시 추기경

방글라데시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 꽃동네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비의 선교사들인 꽃동네 형제회, 자매회 수도자들이 창설자인 오신부님과 함께 이곳 방글라데시 꽃동네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오웅진 신부님과 꽃동네 수녀님, 수사님들을 제가 2004년 한국에서 만나 뵈었던 적이 있

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그분들을 방글라데시에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환자를 보았는데 그분이 35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아주 기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 마디를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침에 일어나자 모든 분들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꽃동네 공동체가 그 사랑을 우리 방글라데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해외

꽃동네 15개 국 진출 역사에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2009년 꽃동네 세계성령대회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평신도들이 꽃동네 가난의 영성에 감명을 받아 자기나라에 꽃동네를 유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게이 자매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회원들이 2011년부터 시작된 꽃동네 행동하는사랑학교(Love in Action School)에 계속 참석하였고, 플로레스 섬의 루벵교구장

을 꽃동네로 인도해서 오웅진 신부와 진출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자신들이 헌금을 모아 땅을 사고, 최고의 건축가를 초대하여 무상으로 설계를 하고 20억이 넘는 건축비를 마련하여 가난한 이들의 집을 지어 주었다. 가장 가난한 자국민을 위하여 그나라 신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꽃동네 수도자를 초청한 것이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꽃동네는 2014년 3월 18일 수녀 2명을 파견하였고, 2018년 6월 건물 준공식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9명의 가족을 모시고 살고 있다.



▲ 인도네시아 꽃동네 전경



▲ 게이 자매와 오웅진 신부



국경 없는 사랑... 바티칸 노숙인들의 '동반자' 박야고보 수녀

원본기사작성 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화려하고 경건한 자태를 뽐내며 하루에도 수천 명의 순례객과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명소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이곳은 '빈자들의 천국'이 된다.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는 노숙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든다. 많은 사람이 안전한 미래를 갈구하며 두 손을 모을 때 당장 그날 먹을 것과 추위를 견딜 방법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다.

순례객과 관광객들 대부분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일부는 흑시나 자신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잔뜩 경계한다. 그렇게 그들은 드넓은 바다에 점점이 흩어진 외딴섬처럼 조용히 광장의 한구석에 몸을 기대 하룻밤을 청한다. 이는 성베드로 광장 주변에서 매일 펼쳐지는 밤 풍경이다.

그런데 그곳에 매주 목요일 저녁 어김없이 나타나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해주고 벗이 되어주는 한국인 수녀가 있다. '꽃동네' 소속 박야고보 수녀(본명 박형지)다. 야고보 수녀는 성베드로 광장 노숙인들 사이에 꽤 '지명도'가 높다. 광장에 상주하는 노숙인치고 그를 모르는 이는 드물다. 그들은 편안한 친구를 대하듯 허물없이 수녀를 반긴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Ciao'(차오), 'Buona sera'(부오나 세라) 등 인사말과 함께 악수하고 포옹도 한다. 그늘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몇 안 되는 순간이다.

야고보 수녀가 손수 장만한 주먹밥과 따뜻한 야채 수프는 매 끼니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만찬이다. 목요일 저녁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야고보 수녀는 2002년 5월 유학생 신분으로 바티칸에 왔다. 교황청립 안토니아눔대학 학부에서 신학·철학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에서 영성신학 석사 과정을 각각 이수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했다. 그것이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2013년은 그의 인생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 해다.

그해 8월 교황청 초대로 바티칸을 방문한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거리에서 노숙인과 집시들을 보고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고, 이는 야고보 수녀에게 '순명'(順命)이 됐다. 그는 2015년 10월 대학 기숙사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렸다. 그리고 노숙인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 '정서상 거리감이 느껴지는 동양인 수녀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해 11월 첫째 주 목요일 100인분의 주먹밥과 수프를 담은 카트를 끌고 처음 광장으로 나섰다. 혼자였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노숙인과 인사를 나눴고 100명 가까이 되는 그들의 이름도 외웠다. 경계하며 통명



사진제공 연합뉴스

스럽게 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귀를 열었고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믿기 어려운 정도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인생 스토리가 쏟아져 나왔다. 수녀는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렸고, 덩달아 야고보 수녀의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졌다.

야고보 수녀는 "단순히 가난하다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들 하나 하나는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집과 가족이 있는데 돌아가길 거부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타인을 불신하고 스스로 사회와 격리하는 그들에게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중요하나 정착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말 한마디"라고 강조했다.

야고보 수녀는 사시사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간 매주 광장으로 나갔다. 노숙인들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시계를 보지 않아도 수녀가 등장하면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라는 것을 안다. 야고보 수녀의 활동이 바티칸과 로마의 한국 가톨릭 교계에 입소문을 타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국의 여

러 교구에서 온 신부 4명, 꽃동네 형제회 신부·수사 3명 등이 음식 장만을 돕고 매주 목요일 광장에도 함께 나선다고 한다.

야고보 수녀의 사연을 전해 들은 주교황청 한국대사관(대사 이백만)도 100인분의 닭강정을 만들어 보내 주고 대사관 직원들이 광장에서 직접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야고보 수녀는 외상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장기간 거처를 제공하고 치료해주기도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명이 수녀의 집을 다녀갔다. 몇 달씩 함께 생활한 이들도 있다.

지금도 이사벨이라는 50대 여성이 수녀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잔다. 야고보 수녀는 아들과 함께 노숙하던 그녀의 다리가 붓고 썩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 달 전 간신히 설득해 집으로 데리고 왔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병원에도 가지 않으려던 그녀를 정성스레 돌보고 치료했다. 처음엔 굳게 입을 닫았던 그녀도 지금은 농담을 건넬 정도로 친근해졌다. 앞으로 수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속마음도 털어냈다고 한다.

수녀의 집에서 마음을 치유한 한 여성 노숙인은 자력으로 광장을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복귀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수녀의 집에 놀러 와 얘기를 나눈다.

수녀는 "스스로 보람을 느끼려고 이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음을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와 마주한 시간 동안 웃고 미소짓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다"고 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계획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런 욕심 없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이다.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이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다.

수녀는 요즘 들어 더 자주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했다. 하느님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나라다.

"여기가 한국이나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계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려고 합니다." 수녀는 이 말을 남기고 다음 주 광장 방문 준비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lucho@yna.co.kr

버림받은 한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



글 로마 꽃동네 현진섭 바르톨로메오 신부

로마 꽃동네의 사도직은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명의 수사(3명의 수녀가 이곳에서 학업과 함께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을 위한 꽃동네의 사도직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주에 한번은 바티칸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뷔페를 만들어서 나누어드리고, 주일에는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 샤워시설에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바티칸 광장에 계시는 노숙인분들과 가까워 질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티칸을 지나가다가 몇 번 얼굴을 익힌 노숙인분(요크)이 계셔서 너무 반가워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가리키면서(평화를 상징), 인사하는 분이셨는데 심한 욕을 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계속 표정이 어둡고 저희가 나눠주는 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목과 인파선 주변에 흑이

있었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그렇게 누워서 신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소리가 지워질 않았습니. 며칠 후 다시 요크를 만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모시려고 몇 차례 본인 의사를 물어봤는데 극구 부인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삶을 원망하고, 욕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핌 없이 세상을 떠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크는 이태리사람이 아니라 독일인이었고, 신분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가족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시설 허가가 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 말씀이 착한사마리아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쳤던 사제도, 율법학자도 각자 자신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오직 한가지의 이유, 사랑만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집에 모셔서, 샤워를 시켜드리고, 스포를 끓여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지내면서,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요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남매 중 2번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소식을 끊은 지는 오래 됐고, 형제자매들하고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그렇게

30년간 유럽을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로마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자신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영원한 삶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리를 하며, 저희 집에서 세례성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극구 부인했었는데 설득해서 병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그 날, 저에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다시 너희 집에 올 수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면회를 갔는데,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들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면, 저희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병원검사 결과 병명은 간암말기였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크도 계속 저희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호스피스 전문병원 의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매일 저희 집에 의료진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저희 집에 다시 모셨고, 이를 뒤부터 매일 의사와 간호사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요크를 치료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요크 방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봉성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묵주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고, 너희가 내방에 전부 들어오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숨이 모자란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은 억지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어느 날 묵주기도를 하는 중에 요크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보이고, 활짝 웃더니 천장을 계속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묵주기도가 끝나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하느님을 느꼈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을 특별히 돌보아주고 계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임종 준비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이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생사가 궁금하지도 않다던 부모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인..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30년 가까이 거리를 떠돌면서, 친구도, 가족도, 연락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구걸하고, 풍초를 주워 피며 평

생을 거리에서 살았는데,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임종을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다시 너희 곁에 돌아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전대사와 병자성사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날은 성모승천대축일 8월 15일 08시 15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요크를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장례미사는 저희 집에서 수녀님들과 바티칸 노숙인 세분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함께 했던 독일 노숙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꼭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요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너희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 힘으로 용서를 한 거 같다고..” 그러면서 저희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크... 천국에서 잘 계시죠? 우리 곁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저희가 가난한 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요크를 하느님께 보내드리며 저희 안에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곳 로마에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꽃동네가 로마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가난한 이들을 찾아나섭니다.

꽃동네가 하는 일은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이 아닌, 인간 구원사업입니다



공동체 소식 자메이카 꽃동네



마약, 갱단 지역에서 꽃피는 사랑

자메이카는 중미에 위치한 우리나라 제주도의 6배 크기로, 에메랄드 빛 바다색깔이 아름답고 레게음악, 블루마운틴 커피,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의 나라이다. 가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의 2%, 관광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즐긴다. 치안 부재로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하며, 일거리가 많지 않아 젊은이들은 무직, 마약, 알코올 의존,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고 노숙인들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의 활동은 몬테고베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다운타운의 노숙인들과 가난한 지역의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분배한다. 매주 수요일은 그랜데본의 가난한 지역을 방문하여 도시락과 팩킹(쌀, 콩, 옥수수 가루, 의류, 신발, 모기장 등)한 것을 전달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여 가져다 드리고 아프신 분들은 병원 진료나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증이 없어 학교 못가는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산골) 마을 뿐만 아니라 갱단지역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몬테고베이에서 꽃동네 수도자들처럼 가난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준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한다. 그

래서 우리의 활동은 이곳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 안에 하느님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6개월 이전에는 절대로 너희들끼리 다운타운을 가지 말 것이며 시계, 스마트 폰 등 귀중품은 집에다 놓고 다닐 것, 택시는 위험하니 타면 안 된다.”는 등 주의사항을 귀가 따갑도록 해주었다. 6개월이 넘어 우리는 갱단들이 산다는 알비온 레인을 가기로 했다. 주교님께 알비온 레인을 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위험하니 “동네 안까지 가지 말고 동네 입구에서 팩킹한 것을 분배하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당신도 이곳에서 사목을 하지만 그런 지역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같이 갈 봉사자를 찾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다. 같이 일하는 FFP 봉사자들도 “왜 위험한 지역을 자초해서 가느냐?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지역을 가본적도 없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결국 주교님 운전기사과 우리들만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운전기사 역시 내심으로 불안해하며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알비온 레인 동네 입구에 들어서니 외부차량이 들

어오지 못하도록 큰 냉장고로 길을 막아 놓았고, 동네 입구부터 마약냄새가 진동하였다. 온몸에 문신하고 술냄새를 풍기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우리를 맞이하는데 너무나 색다른 풍경이라 잔뜩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태연한 척 미소지으며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약간은 경계하며 수건 쓴 수도자를 처음 보는 양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들이 빙그레한 웃음으로 화답을 해 주는 것이다.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꼈다. 이곳 갠단들이 사는 동네는 이웃 동네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않는다. 마을 리더와 미리 연락을 하여 우리가 준비한 팩킹 분배는 일사 분란하게 20여 분만에 끝이 났고(다른 가난한 지역 분배 시 무질서 하여 서로 가져가려고 하여 봉지가 터지고 분배하는 우리들이 곤혹을 치르기 일쑤인데) 의리 있게 독거 어르신이나 팩킹 보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따로 챙기는 리더를 볼 수 있었다. 동행하는 수녀님에게 동네 깊숙이 집으로 들어갈 때는 일행이 함께 움직이자고 미리 약속한 터라 함께 리더의 안내로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무료급식소로 돌아와 보니 FFP 봉사자들도 걱정이 되었는데 경찰들에게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한다고 미리 연락을 해 놓

았고 경찰도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해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갠단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알비온 레인의 리더가 그곳 친구들과 같이 무료급식소에 와서 화단을 가꾸어 주는 등 몬테고베이 FFP에 와서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그때 함께 가기 꺼려했던 운전기사사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자고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난한 이들을 찾아 갈 곳을 알아봐주고 기쁘게 팩킹 분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 되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교님께서도 걸리 지역의 가난한 지역을 자주 방문하시어 도움을 주고 계시며 걸리 지역 리더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성당에서 열심히 예비자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봉사자들을 만나 낯선 이곳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죄인들의 회개와 자메이카 가정의 성화를 위해 봉헌한다.



◀ 수녀의 봉사를 도와주는 마을 대표들

▼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마약환자를 돌보는 수녀



파라과이 꽃동네

글 파라과이 꽃동네 김태형 야고보 수사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파라과이 방문 준비위원장이었던 세페리노 발데스 전 주한 파라과이 대사님은 파라과이 까아꾸페 교구장인 클라우디오 히메네스 주교님에게 꽃동네를 초대할 것을 권유하였고 주교님의 요청으로 예수의 꽃동네 형제들이 파견되어 2016년 7월 1일 파라과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주교님은 꽃동네 형제들에게 작은 수도원을 마련해 주셨고 형제들은 그곳에서 사도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를 찾아다니던 중 2017년 3월 5일 오갈 데 없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계셨는데 개미들이 올라와 할아버지의 발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할아버지를 수도원에 모시고 왔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살바도르',

'구원자' 라는 뜻처럼 정말 그분은 꽃동네 형제들을 구원하였고 그날로 파라과이 꽃동네는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제들과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며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노숙인들을 하나 둘 수도원에 모셔왔고 어느덧 7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수도원 거실에 침대를 7개 놓고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도 있었는데 욕창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음식을 떠먹여 가며 간병을 하였습니다. 작은 수도원에 형제들을 포함해 10명이 생활하였고 화장실 변기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생활이 가능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을 돌본다는



꽃동네 입소 전 후 변화모습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파라과이 요리를 배워 어설프지만 가족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하루 24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개인 사생활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말도 서툴고 현지 적응도 덜 된 상태에서 파라과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꽃동네 형제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방문객들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 꽃동네에 필요한 물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교님이 꽃동네를 방문하셨고 형제들이 가족분들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가족분들로 수도원이 다 차버린 것을 보신 주교님은 근처에 있는 옛 진료소 건물을 꽃동네가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려졌던 집이라 교구와 공동부담으로 개보수 공사를 한 뒤 가족분들을 모시고 입주하였습니다.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침대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도 기증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2017년 11월 30일 창설자 오웅진 신부님을 모시고 파라과이 꽃동네 '자비의 집'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주교님과 교황대사님 비서 몬시뇰, 그리고 정부 인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큰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번듯한 시설 없이 작은 수도원에서 버려진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면서 시작된 파라과이 꽃동네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를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모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예수님이 창설자의 영적체험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은 수도원보다 더 큰 집에 23분의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모시고 5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꽃동네가 제법 파라과이에 알려져 보건부 장관도 다녀갔고, 간호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간호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며,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내과, 정신과, 치과 의사들의 진료 봉사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늘어가면서 시설 주일미사가 필요했는데, 매주 사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는 신학교 신부님들이 오시기로 했고, 돌아가면서 매주 일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학생들은 한달에 한번 꽃동네 청소봉사도 오구요.

이웃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착한 심성은 꽃동네를 중심으로 더 커져 이곳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파라과이 꽃동네' 그 시작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랑스런 우리 꽃동네의 영성입니다. 사랑합니다.

공동체 소식 인도 꽃동네



하느님 사랑 온누리에!

글 인도 꽃동네 김덕순 마태오 수녀

선교지 강간호를 축하하며 우리 인도꽃동네를 소개합니다.

인도 꽃동네는 인도에서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케랄라(Kerala)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주" 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신이 내려준 땅' '축복의 땅'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인구는 중국에 버금가게 13억~14억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겨우 0.2%가 크리스찬입니다. 인도는 힌두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케랄라는 19%가 크리스찬입니다. 과연 '신이 내려준 땅, 축복의 땅' 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1년중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이며 사시사철 덥습니다.

그 중에서도 3~5월은 얼마나 더운지 숨쉬기가 어려워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이며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기철이 있어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우거져 아름답습니다.

우리 꽃동네가 자리하고 있는 꽃다얌 구리찌는 자그마한 소도시로써 대부분 가난하며 하루하루 노동해서 먹고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0년전에 이곳에 2명의 수도자가 파견되었을 때 이곳의 가정들은 TV가 없어서 어느 한집에 TV가 있으면 그 집에 모여서 TV를 보곤하였습니다

가정의 주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집에서 자녀들

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마땅한 놀이터가 없으니 우리 요양원 마당을 놀이터 삼아 놀고 TV를 보고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졌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오갈데 없고 병들고 소외되신 분들입니다. 거리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방문하여 모셔옵니다.

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금방 모셔오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친해진 다음에 의사를 물어보면 얼른 따라 나섭니다. 이곳은 힌두국가라서 조심을 많이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수 있고 추방도 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밀에서 들보아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 정신질환자들을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고 식사나 필요한 물품을 갖다드리고 친교도 나누는 다. 선교는 친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나라의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가장 낮게 세상안으로 특별히 가난한 이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조금씩 닦아가며 사는게 선교사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길에 초대받았으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라과이꽃동네 행려병자 시설 <자비의집> 전경



아르헨티나에서 주님을 만났다!

글 아르헨티나 꽃동네 최하나 필립보 수녀

아르헨티나에서 소임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소임을 받고 그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다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마르틴 교구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부에노스 대교구로 이사오는 것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해 축복식을 갖기 전 2018년 8월 6일엔 주님의 은총으로 대장암 말기였던 엔리케따 할머니를 시작으로 몇 분의 가족을 더 모시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에밀리아 할머니를 꼽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마약 중독 시설의 안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계셔서 주교님의 권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기에 시력은 잃었지만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놀랄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5개의 기적의 패 중 3개는 우리 수녀들에게, 1개는 본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곧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셔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할머니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버스 정거장으로 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자매님 한 분을 멈추게 하고는 그 펜던트를 선물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그것을 받고는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연인 즉, 그 자매님의 2살 아이가 며칠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무사히 수술이 끝날 수 있게 성모님께 청하러 가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에밀리아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야 너는 나를 믿느냐?"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 와서 모시게 되는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 속에서 분명 우리는 특별한 분들을 모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곤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보내 주시는 하느님을 점점 더 체험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난한 이 한 분을 모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 주님께서 가족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봉사자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꽃동네에서도 지켜 주신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 주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지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찬미 받으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미국 꽃동네는 한국계 미국인 윤석원(요아킴)회원이 꽃동네회원을 현지에서 모집하여 한국으로 송금해 오던 것을 1985년 창설자 신부의 권유로 미국 꽃동네 설립을 지향으로 회비를 모으기 시작하여, 1998년 8월 20일 미국 LA지역의 교민들 중 '의지할 곳 없고 언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현지 사도직을 위해 예수의꽃동네 자매회 수녀가 파견되어 1999년 5월 12일 LA다우니에 첫 공동체가 문을 열었다.



린우드 공동체

LA다우니에서 2000년 8월 15일 린우드 지역으로 이전, 축복식을 가지면서 린우드 꽃동네가 정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미국꽃동네 개원 후, 이운영 할머니(당시 83세)를 첫 가족으로 모시게 되었다.



테메쿨라 공동체

테메쿨라 꽃동네는 현지에서 살던 은인(서이레나)의 끊임없는 기도의 열매로 2000년 8월, 꽃동네가 테메쿨라에 진출하여 2002년부터 피정의 집을 운영하며 꽃동네 영성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뉴저지 공동체

뉴저지 꽃동네는 2002년 10월 23일 축복미사를 봉헌하고 본격적으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은 '예수님의 성면'을 공경하는 성체조배실과 마마질리 여사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재속회원들에 대한 활발한 교육과 피정을 통해 다른 어느 지역 공동체보다 충실하게 꽃동네 영성을 꽃피우고 있다.



조지아 공동체

200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조지아 꽃동네가 개원식을 가졌다. 이는 재미교포 두 자매가 운영하던 '두자매양로원'을 꽃동네에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지리적으로 아이티 꽃동네와 자메이카 꽃동네 근접하고 있어 물적 지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난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행동하는 사랑학교 이야기

꽃동네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살아 있는 사랑

글 닐세 고로스티아가 (파라과이)

2019년 5월 한국 꽃동네에서 있었던 “행동하는 사랑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기회는 제 개인적인 삶과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의 영적 삶을 자발적이고도 사도적인 선교 정신으로 정의하고 밝혀 주셨습니다.

파라과이 꽃동네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마누엘리타 페냐(Manuelita Peña) 여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 화요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도권 아순시온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까아구페의 꽃동네로 가서 봉사자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기본적인 치료와 외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 노래, 대화, 놀이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꽃동네로의 여행이 현실이 되고 ‘행동하는 사랑학교’에 참석 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이 경험이 제 영적인 삶에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꽃동네 창설자이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오웅진 신부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며, 하느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가득찬 진정한 카리스마를 갖추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 신부님이 전한 진정한 행복을 위한 4가지 기둥: “자선, 봉사, 희생 및 속죄”에 대한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꽃동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 학교, 버려진 아기,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집들을 방문하면서, 아픔 중에도 그들의 여러 체험담을 통해 그분들 마음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그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그분들과 노래와 춤을 같이 하며 그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제 마음에서 그분들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아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 얼굴이 사랑을 느끼면서 환한 미소로 가득해졌던 것은 제 기억과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폼바 축제에 참여하면서, 성자 최귀동 할아버지를 기념하고 또 이 축제를 통해 한국의 관습과 전통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저는 노숙인들을 위한 축제에 제 나라의 전통 무용을 선보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유의 순간 중 하나는 치유기도회에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송가와, 안수기도 받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의 치유와 해방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천국의 한 조각 같은 한국 꽃동네에서 가지며 풍요를 누리며 더 바랄 게 없을 때에 이 세미나의 마지막 졸업식 미사에서 저와 다른 참석자들은 꽃동네 재



속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 활동, 일, 가족, 친구들과의 일상 생활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잊혀진 많은 분들을 섬기며 사랑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꽃동네에서 지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행동하는 사랑’의 영의 불이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주며 또 그 분들도 사도적인 자선, 봉사, 희생 및 속죄를 행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그 분과 함께 만끽하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하느님에게는 제일 소중한 분들인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제가 가족, 지인, 동료들 및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꽃동네가 가장 가난하고 사회에서 잊혀진 분들에게 베푸는 사랑, 자선, 희생 그리고 제가 한국 꽃동네에서 보고 경험한 많은 영적인 일과, 파라과이 꽃동네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하는 일들, 파라과이 꽃동네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모든 헌신적인 배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꽃동네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들의 연약하고 잊혀진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 정원의 아름답고 진정한 꽃동네의 꽃이 되는 삶을 알리고 싶습니다. 매일 꽃동네의 꿈들이 현실로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며,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리됨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꽃동네!!

행동하는 사랑학교 (Love in Action School)

Our Love Should not be just words and talk; it must be true love, which shows itself in action (1John3,18)



노숙인축제에 초대된 스페인어권 10개국 참가자들

일시 : 매년 5월 / 10월
문의 : 김명심 안드레아 수녀 (010-5490-5345)

2009년 세계성령대회가 “Love in Action”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꽃동네에서 개최되었고, 행동하는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5월 “Love in Action School”이 시작되었습니다.

“Love in Action School”에서는 버림받은 상처로 고통 받았지만, 사랑으로 변화되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꽃동네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꽃동네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성령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꽃동네에서 배웠던 사랑을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추기경,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7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꽃동네 사랑의 영성을 배우고 체험하였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꽃동네 영성을 살아가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의 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대의 글로벌 현장체험

꽃동네대학교 글로벌 현장체험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개교 22주년을 맞는 꽃동네대학교는 믿음·소망·사랑의 가톨릭이념과 행동하는 사랑의 꽃동네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복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운영을 위한 각종 국가지원사업이 계획되기 7년 전인 2002년, 필리핀 마닐라 사랑의 집에 21명의 학생들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2명의 학생들이 필리핀 꽃동네에서 봉사하였으며, 이러한 글로벌 봉사는 안전한 파견지와 많은 예산이 필요했기에 매우 소수의 대학만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시작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하여 5년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된 꽃대는 그 중 약 12억 원을 글로벌 봉사 예산으로 책정하여 2009년 연 2회 필리핀 봉사 및 방글라데시 추가 파견, 2010년 인도, 2012년 우간다, 인도네시아에 추가 파견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된 CK-1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지원하여 5년간 약 80억원의 안정적인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4년 아이티, 2015년 미국에 추가 파견하는 등 약 12억원을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꽃대의 학생들은 매년 전교생의 25% 이상이 해외 봉사 체험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전공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이유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를 하는 내내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한사람이 드린 것 보다 오히려 30명이 넘는 가족분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밝은 성격이지만 방글라데시에 가기 전까진 제가 진짜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가 왜 이 길을 가야하는지 느꼈습니다."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18학번 윤지희 마리아고레띠

단신

방글라데시 꽃동네 가족 '바스케' 서울성모병원서 수술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좌측 골반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고통으로 생활해 온 방글라데시 꽃동네 가족 바스케(베드로)가 2019. 9. 15. 입국하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같은 달 17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염증이 심하여 고관절 뼈가 녹아 두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 잘 걷지도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님이 수 천만 원의 수술비와 입원비 일체를 부담해 주셨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깨끗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의 꽃동네 은인 (정득남 박사)가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마운 분들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2019. 11. 17. 방글라데시 꽃동네 박정남 수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서울성모병원 의료진과 신준식 원장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꽃동네 에코프로젝트 빈곤 에이즈 감염인 가정 집 지어주기 열다섯 번째 집 완공

우간다 남부 키루후라 지역 650가구 900여 명의 빈곤 에이즈 감염인을 돕고 있는 꽃동네 에코프로젝트팀은 가톨릭평화신문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라는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열다섯 번째 집을 완공하여 입주시켰습니다.

새 집에 입주하신 분들은 "꿈도 꾸지 못한 새집을 선물 받아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 흠어졌던 가족들이 한집에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꽃동네 미얀마 첫 파견

2019년 8월 13일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 2명이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인구 5천 3백만 명의 불교국가로서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오래 전부터 꽃동네 진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로서 미얀마는 꽃동네 수도자들이 진출한 15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기후 안에서 꽃동네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선교동반자를 찾습니다

선교의 꿈을 지닌 젊은이 여러분!!!

지구촌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세계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때입니다.

꽃동네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드림, 아메리칸 드림, 아시안 드림 ...

초대합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슬픔, 버림받음의 현장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연락처

- ☎ 043-879-0283
- ☎ 010-5464-1265
- f kkottongnaebrsr
- 📷 kkotbrsr
- 📱 _mxcvxaT



해외 꽃동네 주소 (진출순)

필리핀꽃동네

필리핀 사랑의집
Lot 48, Block 71, JP Rizal St.
Upper Bicutan, Taguig,
Metro Manila, Philippines
+63 915-535-0347
kkotshb@gmail.com

필리핀 소망의집
No.19 LPL Avenue, MJS Com-
pound, Levitown Subdivision,
Betterliving, Paran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63 908-218-4707
anabim3333@hanmail.net
http://cafe.daum.net/philkkotsa

필리핀 교황 프란치스코 센터
Gonzaga House,
Archbishop's Residence
Brgy, Arado, Palo, Leyte, Philip-
pines
+63 917-999-1413
mg5910@hanmail.net

미국꽃동네

린우드
3542 Norton Ave.
Lynwood, CA 90262 USA
+1 310-764-5331
srphilip93@gmail.com

테메쿨라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USA
+1 951-302-3400
tmclkkot@gmail.com

뉴저지
424-426 Minton PL.
Orange, NJ 07050 USA
+1 201-230-5643
njkkot@hotmail.com
www.njkkot.org/njkkot

조지아
5732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USA
+1 770-638-1385
17706381385@hanmail.net
http://www.gakkot.us

로마꽃동네

Via di bravetta 716, int 2,
00164 Roma, Italia
+39 338-3016-992
cieloeterra@hanmail.net

방글라데시꽃동네

75 Kuchilabari Ulukhola Kaligonj
Gazipur Bangladesh
+880 173-356-1324
pthaddeus00@gmail.com
http://cafe.daum.net/bangkkot

우간다꽃동네

움바라라 사랑의집
P.O. Box. 1933 Mbarara, Uganda
+256 77-324-9498
onnuri83@gmail.com

키루후라 사랑의집
P.O. Box. 45 Lyantonde, Uganda
+256 77-567-9980
k-hannara@hanmail.net

인도꽃동네

성요셉 노인요양원
Sachivothampuram P.O. Kuricy
Kottayam-686532, KeralaIndia
+91 90-4895-1985
srmtto@hanmail.net

아이티꽃동네

Rte Nationale No.3 Beudet-Meyer,
Croix des Bouquets, Haiti
www.haitikkot.org/cms/
+509 3442-9220
haitikkot@gmail.com

캐나다꽃동네

Kkottongnae Catholic
Church of Canada Inc.
6096 SECOND LINE RR 1,
ERIN, ON, CA L0N1N0
+1 647-808-3989
kkot99@hanmail.net

인도네시아꽃동네

Cowang Dereng RT05/02
DS Batu Cermin KEC,
Komodo KAB Mabar Labuan Bajo
Flores NTT Indonesia
+62 81-1398-5733
indonesia.kkot@gmail.com

파라과이꽃동네

Rota 2, Mcal, Estigarribia, Km 51,
Barrio Seminario, Caacupe, Par-
aguay
+595 985-804-066
kkotpy@gmail.com

아르헨티나꽃동네

Monte 4151, Parque Avellaneda,
Buenos Aires, Argentina
+54 11-6469-1268

자메이카꽃동네

Diocese of Montego Bay 1 Fort
Street, P.O. Box 197, Montego Bay,
Saint James, Jamaica, WI.
+1 876-492-4148~9
klsh0750@gmail.com

파나마꽃동네

Santa Maria del camino,
ciudad radial, Juan Diza Panama
+507 6312-3283
st-basi@daum.net
+507 6229-3836
kc8djq@gmail.com

미얀마꽃동네

Sacred Heart Church Tuk-Gyi
Gone Hmawbi Yangon Divisio
Myanmar
+959268307604

KKOTTONGNAE
MISSIONARY SCHOOL FOR YOUTH

꽃동네청년선교학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16,15).**

꽃동네청년선교학교는 청년들을 초대하여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25,40)라는 꽃동네 영성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4,18)
선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규프로그램

매년 1월 중 선교학교 개강 및 파견

수시프로그램

개인 사정에 맞춰 선교 양성 및 파견

파견 지역

필리핀, 아이티, 우간다, 방글라데시, 인도 등 꽃동네 해외분원 15개 나라

문의 043-879-0120 / 043-879-0283 / 010-5464-1265 성소자담당

